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500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8월
석사학위 논문

대상포진에 관한 대학 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의 인식도 및 행태, 백신 수용도 설문조사

-대학 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의 대상포진 인식도 조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윤 상 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포진에 관한 대학 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의 인식도 및 행태, 백신 수용도 설문조사

-대학 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의 대상포진 인식도 조사-

A Survey of the Awareness, Knowledge, and Vaccine Acceptability of Herpes Zoster in Dermatologic Outpatients of University Hospital

2015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윤 상 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포진에 관한 대학 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의 인식도 및 행태, 백신 수용도 설문조사

-대학 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의 대상포진 인식도 조사-

지도교수 신 봉 석

이 논문을 의학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윤 상 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윤상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민 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신 봉 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나 찬 호 인

2015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목차 ---------- ii

영문초록 ---------- iii

제1장 서론 ---------- 1

제2장 대상과 방법 ---------- 2

제3장 결과 ---------- 3

제4장 고찰 ---------- 8

제5장 결론 ---------- 11

참고문헌 ---------- 12

표 ---------- 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 15

Table 2. Detailed knowledge about herpes zoster ------ 16

Table 3. Detailed knowledge about herpes zoster vaccination ------ 19

Table 4. Detailed knowledge about therapy and early diagnosis of herpes zoster ------ 20

Table 5. Comparison of the groups' awareness to the herpes zoster in relation to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pulation ------ 21

Table 6. Comparison of the groups' knowledge to the awareness of herpes zoster ------ 2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Youn Sang Ho
Advisor : Prof. Shin Bong-Seok, M.D., 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Background: Herpes zoster(HZ) infection can significantly damage the quality of life of affected individuals, and its treatment costs a lot of time and money.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of the disease and vaccine in Korea.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ct the awareness of HZ and its vaccine among outpatients of dermatology clinic.

Methods: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with 884outpatients who visited the dermatologic clinic.

Results: The response of patients revealed a high awareness of HZ(82.6%) but a relatively low knowledge about HZ(60.4%) and its vaccine(57.6%). As a result of this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direct cause, pathophysiology, recurrence and infectiousness of HZ was relatively inadequate, and it could be seen that the perception of the symptom and clinical feature of HZ was high. In our data, the knowledge of HZ wa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igher in female and elderly groups, in groups with past history of HZ along with highly educated groups and groups having multiple chronic disease(P<0.05). Additionally, the HZ vaccination rate among patients was 5%, and the majority of people(66.0%) responsed that if physicians recommend, they will get vaccinated.

Conclusions: Although majority of people are aware of HZ, they don't seem to have a detailed knowledge about it. Therefore, a nation-wide HZ education and vaccination program is strongly recommended and dermatologist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this program.

Key Words : Awareness, Behavior Knowledge, Herpes zoster, Questionnaire, Vaccina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대상포진은 피부과 외래환자의 0.2~2.84%를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1,2], 유럽과 미국에서 해마다 280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Straus 등[7]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특히 세포성 면역이 선택적이고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므로 노인에서 대상포진의 발병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 대상포진의 평균 발생율은 연간 1000명당 3.4명 꼴로 보고되고 있지만 50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거의 8명 꼴, 80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11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최근 노인 인구 증가 및 면역 억제제의 사용증가 등으로 대상포진의 발생율은 더욱 증가되어 가고 있어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상포진 인식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최근에는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환자들의 대상포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병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타과에서의 조기 진단율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인식도가 낮은 실정이고 특히 이러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인식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대학병원 피부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및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대상과 방법

제1절 대상자

이 연구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달간 조선대학교 병원 피부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 8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지시에 따르기 힘든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초진과 재진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제2절 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 학력, 거주지, 직업, 만성질환 유무, 대상포진 과거력 유무의 인구학적 특성과 대상포진의 원인, 증상, 합병증, 재발빈도, 호발부위, 초기진단, 치료시기의 기본적인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도 및 대상포진 백신의 인식도의 세부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은 총 31개 항목이었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제3절 통계학적 분석

모든 자료의 처리와 검증은 PS-SPSS package 1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결과는 p 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결 과

제1절 인구학적 분석

설문 조사에 참여한 총 893명 중 9명은 50% 이하의 불완전한 설문지 작성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884명이 자료 분석이 가능한 답변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19세에서 87세까지 평균 39.6세였고, 성별은 남성 413명(46.7%), 여성 471명(53.3%)이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433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대학교 재학중을 포함한 고졸이 337명(37.0%), 중졸이하가 95명(10.4%)순이었다. 거주지별로는 대학병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714명으로 8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중소도시 75명(8.5%), 군단위 이하가 95명(10.7%)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284명(32.3%)으로 가장 많은 군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주부 213명(23.4%), 자영업자 197명(22.4%) 농수산업 79명(9.0%), 취업준비생 77명(8.8%), 회사원 30명(3.4%)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중 777명(87.9%)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없었으며,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85명(9.6%), 2가지 이상을 가진 대상자가 22명(2.5%)이었다. 대상포진을 앓은 과거력을 가진 대상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였다(Table 1).

제2절 대상포진의 원인, 증상, 호발연령, 호발부위, 재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731명(82.6%)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53명(17.4%)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은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상포진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419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경우가 283명(32.1%), 피부과 의사로부터 들은 경우가 74명(3.2%), 타과 의사로부터 들은 경우가 23명(0.8%), 서적 등 기타 매체를 통해 접한 경우가 82명(2.3%)에 해당하였다.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스트레스 및 과로가 386명(43.7%)으로 바이러스감염 353명(39.9%)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세균 감염이 119명(13.5%)으로 적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않은 수를 차지하였다. 대상포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618명(69.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상포진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2명(77.1%)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연령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50~60대가 506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상포진의 주된 증상을 묻는 질문에는 436명(49.3%)이 통증, 273명(30.9%)에서 피부의 물집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포진이 전염성 질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98명(22.4%)만이 전염성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대상포진과 수두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348명(39.4%)만이 연관있다고 답하였다.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부위에 대한 질문에는 가슴이라고 가장 많은 272명(30.8%)의 응답자가 답하였으며,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계절에 대한 질문에는 여름이 262명(29.6%), 겨울이 230명(26.0%), 봄이 208명(23.5%), 가을이 174명(19.7%)으로 비교적 균등한 응답을 하였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통증의 지속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4주가 288명(32.6%), 2주가 252명(28.5%), 3개월이 118명(13.3%)이라고 답하였으며, 대상포진의 재발에 대한 질문에는 127명(14.4%)만이 재발이 어렵다고 답하였다(Table 2).

제3절 대상포진 백신의 인식도 및 수용도 조사

대상포진의 예방접종백신의 존재에 대해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반수 이상인 509명(57.6%)이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극히 일부인 44명(5.0%)이었으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기대의 정도는 절반 정도인 456명(51.6%)만이 그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해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꼭 받고 싶다는 답변이 189명(21.4%)이었고 583명(66.0%)가 담당의사가 추천한다면 받고 싶다고 답하였다(Table 3).

제4절 대상포진의 치료시기, 초기진단 및 홍보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포진의 치료시기가 향후 증상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70명(53.2%)이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포진에 대한 초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진단시 피부발생에 앞서 통증이나 압통,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먼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명(45.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추후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면 다른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720명(81.4%)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4).

제5절 나이, 성별, 대상포진 과거력, 학력, 거주지, 만성질환에 따른 대상포진 인식도 조사

대상자중 대상포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121명(13.7%)은 전혀 모른다로 답하였고 227명(25.7%)은 거의 모른다, 470명(53.2%)은 조금 안다, 64명(7.2%)은 잘 안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대상포진의 인식도 차이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우선 나이에 따른 대상포진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각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특히 고령에서 높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대상포진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녀 두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여성에서 대상포진 질환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응답자 중 대상포진의 과거력을 가진 대상자는 113명(12.8%)였으며 대상포진의 과거력에 유무에 따른 대상포진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대상포진의 과거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대상포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대상포진 인식도 또한 각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대졸이상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도를 보였으며, 고졸보다 중졸 이하의 대상자들이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수에 따른 대상포진의 인식도도 그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만성질환 수가 2가지 이상인 그룹의 3분의 1에서 대상포진에 대해 잘 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거주지에 따른 대상포진 인식도에서는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절 대상포진 인식도와 대상포진의 정확한 정보와의 일치 정도

대중들이 자신이 대상포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것과 실제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인식도에 따른 실제와의 일치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잘 안다라고 답한 자들의 40.6%였으며, 조금 안다라고 답한자들의 40.9%, 거의 모른다고 답한 자들의 43.6%, 전혀 모른다고 답한 자들의 29.8%로 인식도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진 않았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대상포진의 발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잘 안다고 대답한 대상자들의 89.1%, 조금 안다라고 대답한 이들의 88.5%, 거의 모른다고 대답한 71.4%,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의 37.2%에서 그렇다고 대답하여 인식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호발연령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잘 안다라고 대답한 이들의 78.1%, 조금 안다라고 대답한 이들의 70.3%, 거의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의 57.3%에서 5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고 답하여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의 71.1%에서 5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고 답하여 정확한 일치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상포진 발생시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대답한 이들의 84.3%, 조금 안다라고 대답한 이들의 84.9%, 거의 모른다라고 대답한 이들의 78.0%,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의 64.5%에서 통증 혹은 피부의 물집을 선택하여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상포진의 전염성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답한 이들의 18.8%, 조금 안다라고 답한 이들의 22.8%, 거의 모른다라고 답한 이들의 23.3%,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21.5%에서 전염성이 있다라고 답하여 전혀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대상포진과 수두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안다고 답한 이들의 51.6%, 조금 안다고 답한 이들의 46.2%, 거의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30.4%,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24.0%에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대상포진의 호발부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답한 이들의 35.9%, 조금 안다고 답한 이들의 36.4%, 거의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24.7%,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18.2%에서 실제 호발 부위인 가슴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대상포진의 재발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답한 이들의 23.4%, 조금 안다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답한 이들의 16.8%, 거의 모른다라고 답한 이들의 11.0%,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6.6%에서만이 재발이 어렵다고 답하여 대상포진의 수두와의 연관성, 호발부위, 재발 빈도에 대한 조사에서 그룹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였지만 잘안다고 답한 이들에서도 50% 이하의 일치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낮은 일치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치료시기와 향후 증상 지속과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대답한 이들의 78.1%, 조금 안다고 대답한 이들의 59.4%, 거의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의 43.2%,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의 33.9%에서 관련 있다고 답하였고, 피부병변에 앞선 통증 및 압통 신경이상의 발생 유무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대답한 이들의 84.4%, 조금 안다고 대답한 이들의 56.2%, 거의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26.4%,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18.2%에서 발생한다고 답하여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인식도와 실제 지식의 일치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고 찰

대상포진은 varicella-zoster virus(VZ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수포성 질환으로, 수두의 초감염 이후에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에 잠복해 있던 VZV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한다[10,11]. 대상포진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50세 이상의 성인들,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대상포진은 피부 신경절을 따라 편측성의 군집된 수포성 피부발진, 신경통, 그리고 감각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고 치료에 따른 임상경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 및 다양한 면역기능부전 환자에서 그 질환의 재발 및 악화를 나타내는 전구 증상으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평가와 치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3]. 최근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대상포진의 발생과 그로 인한 포진후 신경통이나 흉터 등의 합병증의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며[12,13], 이러한 합병증은 치료 개시 시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유병기간이 길어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전세계적으로 2010년에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포진의 인식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상포진 인식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9], 최근까지 대상포진 인식도에 관한 심도있는 국내 연구는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면 대상포진에 관한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원인, 전구증상, 재발, 전염성 등에 대한 세부 지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는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이따금씩 접하는 대상포진 이야기 외에는 한번도 대상포진 조기진단이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재활성화된 HZV으로 알려져 있지만[10],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다수(43.7%)가 스트레스 및 과로라고 응답하였으며, 세균감염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13.5%로 적지 않아 일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중의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다소 피상적이고 모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포진과 수두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348명(39.4%)만이 연관있다고 답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정확한 대상포진의 발병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도가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 포진의 합병증 중 가장 흔한 것은 포진후 신경통으로 고령의 환자와 삼차 신경절을 침범한 경우 잘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4,15], 본 연구에서도 대상포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618명(69.7%)로 다수를 차지하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주위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우려하는 후유증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은 VZV가 수술이나 외상, 방사선 조사와 면역 억제제의 사용, 비소, 악성종양 및 결핵, 매독,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에 의해 활성화되어 발병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16,17], 본 연구에서도 대상포진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2명(77.1%)가 그렇다고 답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연령은 이[1] 등과 한[18] 등의 보고에 따르면 50대에서 가장 호발하며, 60대에서 다음으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연령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50~60대가 506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대상포진이 고령에서 호발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이 통증을 동반한 편측성의 군집성 수포 질환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13], 대상포진의 주된 증상을 묻는 본 연구의 질문에도 436명(49.3%)이 통증, 273명(30.9%)에서 피부의 물집이라고 응답하여 통증을 동반한 피부의 물집질환이라는 기본적인 질환에 대한 개념은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포진은 수두보다 전염력이 낮으나, 발진 발생 시작 후 7일까지 물집이나 고름물집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대상포진 환자와의 직접 접촉 후 수두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하지만 대상포진이 전염성 질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98명(22.4%)만이 전염성이 있다고 답하여 대상포진의 전염성에 대한 개념이 대중들 사이에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흉추신경피절로 보고되고 있으며[16,17,19], 본 연구에서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부위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수가 가슴이라고 답하였으나 그 수가 272명(30.8%)으로 3분의 1에 불과하여 대상포진의 발생부위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는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은 연중 어느 때나 발생하여 월별 및 계절별 발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4,18], 본 연구에서도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계절에 대한 질문에는 4계절 모두 균등한 답변이 나왔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통증의 지속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4주가 288명(32.6%), 2주가 252명(28.5%), 3개월이 118명(13.3%)으로 대상포진이 최소 2주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이 일단 발생하면 면역 적격자에게 재발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11], 대상포진의 재발에 대한 질문에는 127명(14.4%)만이 재발이 어렵다고 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상포진의 재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 발진 시작 72시간 이내의 항바이러스제의 빠른 투여는 새로운 피부병변을 억제할 뿐 아니라 피부병변의 치유를 빠르게 하고 급성기의 통증을 신속히 감소시키며 통증의 지속기간을 짧게 하고 신경통의발생을현저히감소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11,20], 본 연구에서는 대상포진의 치료시기가 향후 증상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0명(53.2%)이 관련이 있다고 답해 반수 정도에서만이 대상포진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포진은 발진이 발생되기 수일 전부터 동통, 압통,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10], 본 연구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한 초기 진단시 피부발생에 앞서 통증이나 압통,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먼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명(45.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중 반수가 넘는 이들에서 초기 대상포진에서 피부에 선행하는 통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던 인구학적인 요소는 대상포진 과거력의 유무였으며 잘 안다고 답한 이들의 비중이 대상포진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고령일수록 더 높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특이하게 대졸이상과 중졸이하에서 비슷하게 높은 인식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보였는데 이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보인 집단이 다수의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설문조사에서 환자의 대상포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와 실제와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대상포진의 발병관계, 호발연령, 주요증상과 같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식도가 높으며, 인식도와 실제의 일치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치료시기와 향후 증상지속과의 연관성, 피부병변에 선행하는 통증 및 감각이상의 증상과 같은 다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인식도와 실제의 일치도는 높았으나 전반적인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발부위, 재발빈도, 대상포진과 수두와의 연관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식도가 낮았고 응답자의 인식도와 실제의 일치도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과 전염성 유무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았고 응답자의 인식도와 실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결 론

저자들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달간 조선대학교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피부과 외래환자 884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관련한 인식의 형태를 파악하는 한편 지식의 정도를 정확한 지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도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 및 분석 결과, 대상포진의 주요증상, 호발연령,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등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어느정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원인, 호발부위, 재발빈도 등의 세부적인 항목이나 치료시기, 조기진단과 같이 꼭 알아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도도 낮을 뿐 아니라 실제 지식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또한 대상포진에 대해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접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상포진의 지속적인 홍보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인식도가 비교적 낮고 접종율은 미미한 정도이며,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서 담당의사의 추천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Lee HR, Lee MJ, Hahm JH. A Clinical Study and Acyclovir Therapy of Herpes Zoster. Korean J Dermatol 1995;33:661-668

2. Hong JH, Kye YC, Kim SN, Lee SY. A Clinical Study on Herpes Zoster in Inpatients During a 3-Year-Period(1991-1993). Korean J Dermatol 1994;32:583-590

3. Kimberlin DW, Whitley RJ: Varicella-zoster vaccine for the prevention of herpes zoster. N Engl J Med 2007;356:1338-1343.

4. Chidiac C, Bruxelle J, Daures JP, Hoang-Xuan T, Morel P, Leplege A, EI Hasnaoui A, de Labareyre 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herpes zoster on presentation to practitioners in France., Clin Infect Dis 2001;33:62-69.

5. Opstelten w, Mauritz JW, de Wit NJ, van Wijck AJ, Stalman WA, van Essen GA: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incidence and risk indicators using a general practice research database. Fam Pract 2002;19:471-475.

6. di Luzio PU, Arpinelli F, Visona G: Herpes zoster and its complications in Italy: an observational survey. J Infect 1999;38:116-120.

7. Straus SE, Ostrove JM, Inchauspe G, Felser JM, Freifeld A, Croen KD, et al. Varicella-zoster virus infections. Ann Intern Med 1988;108:221-237

8. Gilden DH, Kleinschmidt-DeMasters BK, LaGuardia JJ, Mahalingam R, Cohrs RJ: Neurologic complications of the reactivation of varicella-zoster virus. N Engl J Med 2000;342:635-645.

9. Esther P, Robert J. Public Awareness and knowledge of Herpes Zoster: Results of a Global Survey. Gerontology 2010;56:20-31

10. Straus SE, Oxman MN, Schmader KE. Varicella and herpes zoste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 Feedberg IM, Eisen AZ, Wolff K, Austen KF, Goldsmith LA, Katz SI, editors.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7th ed. New York: McGraw-Hill, 2008:1885-1898
11. Ahn HH, Park SD, Kim KM, Park CJ, Kim HU, Kim JP, et al. Viral dermatosis, In: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Dermatology. 6th ed. Seoul: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2014:454-478
12. Donahue JG, Choo PW, Manson JE, Plalt R. The incidence of herpes zoster. Arch Intern Med 1955;155:1605-1609
13. Dworkin RH, Porenoy RK. Pain and its persistence in herpes zoster. Pain 1996;67:241-251
14. Hope-Simpson RE. The nature of herpes zoster. A long term study and a new hypothesis. Proc R Soc Med 1965;58:9-20
15. De Moragas JM, Kierland RR. The outcome of patients with herpes zoster. Arch Dermatol 1957;75:193-196
16. Sterling JC. Virus infection, In: Burns T, Breathnach S, Cox N, Griffiths C, editors. Rook's textbook of dermatology. 7th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Company, 2004:25.1-25.83
17. Liesegang TJ. The Varicella-Zoster virus : Systemic and ocular features. J Am Acad Dermatol 1984;11:165-191
18. Han ES, Choi HR, Seo SJ, Hong CK, Ro BI. A Clinical Study of Herpes Zoster During The Last 10 Years. Korean J Dermatol 1994;32:286-293
19. Mazur MH, Dolin R. Herpes zoster at NIH: a 20 year experience. Am J Med 1970;65:733-738
20. Huff JC, Bean B, Balfour HH, Laskin OL, Connor JD, Corey L, et al. Therapy of herpes zoster with oral acyclovir. Am J Medicine-suppl 1988;85:84-8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n=884)

나이	평균 (범위)	39.55(19-87세)	
성별	남성	413	(46.7%)
	여성	471	(53.3%)
학력	중졸이하	95	(10.4%)
	고졸이하 (대학생포함)	337	(37.0%)
	대졸이상	433	(47.5%)
	기타	46	(5.1%)
거주지	광역시	714	(80.8%)
	중소도시	75	(8.5%)
	군단위이하	95	(10.7%)
직업	학생	284	(32.3%)
	주부	213	(23.4%)
	회사원	30	(3.4%)
	자영업	197	(22.4%)
	농수산업	79	(9.0%)
	취업준비생	77	(8.8%)
만성질환유무	0개	777	(87.9%)
	1개 이상	85	(9.6%)
	2개 이상	22	(2.5%)
대상포진 과거력	유	113	(12.8%)
	무	771	(87.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2. Detailed knowledge about herpes zoster-1

대상포진에 관해들어본적	있다.	731(82.6%)
	없다.	153(17.4%)
들어본경로	주위사람을 통해	283(32.0%)
	언론매체를 통해	422(47.7%)
	피부과의사를 통해	74(8.4%)
	타과의사를 통해	23(2.6%)
	기타매체를 통해	82(9.3%)
직접적인원인	세균감염	119(13.5%)
	바이러스감염	353(39.9%)
	스트레스 및 과로	386(43.7%)
	외상	3(0.3%)
	노화	13(1.5%)
	기타	8(0.9%)
대상포진하면 제일먼저 생각나는것	대상포진 후 신경통	619(70.0%)
	안면신경마비	88(10.0%)
	흉터	177(20.0%)
대상포진발병과 스트레스의관련	관련있다.	682(77.1%)
	관련없다.	47(5.3%)
	모르겠다.	154(17.4%)
대상포진의 호발연령	10대이상 30대미만	77(8.7%)
	30대이상 50대미만	204(23.1%)
	50대이상 70대미만	506(57.2%)
	70대 이상	91(10.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2. Detailed knowledge about herpes zoster -2

대상포진의 주된증상	통증	436(49.3%)
	가려움	157(17.8%)
	피부의 물집	273(30.9%)
	감각저하	15(1.7%)
	운동장애	3(0.3%)
대상포진의 전염성	전염성이 있다..	198(22.4%)
	전염성이 없다	446(50.5%)
	모르겠다.	238(26.9%)
대상포진의 수두와의 연관성	연관있다.	348(39.4%)
	연관없다.	256(29.0%)
	모르겠다.	279(31.6%)
대상포진의 호발부위	얼굴	197(22.3%)
	가슴	272(30.8%)
	허리	227(25.7%)
	팔	118(13.3%)
	다리	66(7.5%)
대상포진의 호발계절	봄	208(23.5%)
	여름	262(29.6%)
	가을	174(19.7%)
	겨울	230(26.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2. Detailed knowledge about herpes zoster -3

대상포진발생시 통증지속기간	1주	86(9.7%)
	2주	252(28.5%)
	4주	288(32.6%)
	3개월	118(13.3%)
	6개월	56(6.3%)
	1년이상	75(8.5%)
대상포진의 재발빈도	재발이 쉽다.	498(56.3%)
	재발이 어렵다.	127(14.4%)
	모르겠다.	258(29.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3. Detailed knowledge about herpes zoster vaccination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이 있는것에대해	알고있다.	375(42.4%)
	모른다.	509(57.6%)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맞은적	맞은적 있다.	44(5.0%)
	맞은적 없다.	840(95.0%)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기대효과	효과가 기대된다.	456(51.6%)
	효과없을 것 같다.	417(47.2%)
	모르겠다.	11(1.2%)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의향	꼭 받고 싶다.	189(21.4%)
	담당의사가 추천하면 받겠다.	583(66.0%)
	받고 싶지 않다.	110(12.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4. Detailed knowledge about therapy and early diagnosis of herpeszoster

대상포진의 치료시기와 증상지속과의 관련성	관련있다.	470(53.2%)
	관련없다.	82(9.3%)
	모르겠다.	331(37.4%)
피부병변 발생전에 통증 등의증상 선행유무에대해	알고있다.	400(45.2%)
	모르겠다.	484(5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5. Comparison of the groups' awareness to the herpes zosterin relation to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pulation

Characteristics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P
나이	20대미만	5(14.3%)	16(45.7%)	13(37.1%)	1(2.9%)	<.05
	20대이상	45(15.6%)	88(30.4%)	142(49.1%)	14(4.8%)	
	30대미만					
	30대이상	35(11.6%)	80(26.6%)	164(54.5%)	20(6.6%)	
	50대미만					
	50대이상	36(13.9%)	43(16.6%)	151(58.3%)	29(11.2%)	
성별	남성	75(18.2%)	135(32.7%)	172(41.6%)	31(7.5%)	<.05†
	여성	46(9.8%)	92(19.5%)	298(63.3%)	33(7.0%)	
대상포진 과거력	유	5(4.4%)	12(10.6%)	72(63.7%)	24(21.2%)	<.05†
	무	116(15.0%)	215(27.9%)	398(51.6%)	40(5.2%)	
학력	중졸이하	17(17.9%)	20(21.1%)	48(50.5%)	10(10.5%)	<.05†
	고졸(대재포함)	61(18.1%)	91(27.0%)	166(49.3%)	18(5.3%)	
	대졸이상	38(8.8%)	111(25.6%)	248(57.3%)	35(8.1%)	
거주지	광역시	97(13.6%)	181(25.4%)	383(53.6%)	51(7.1%)	>.05†
	중소도시	10(13.3%)	19(25.3%)	39(52.0%)	7(9.3%)	
	군이하	14(14.7%)	27(28.4%)	48(50.5%)	6(6.3%)	
만성질환 수	0	103(13.3%)	202(26.0%)	420(54.1%)	50(6.4%)	<.05†
	1	15(17.6%)	22(25.9%)	41(48.2%)	7(8.2%)	
	2	3(13.6%)	3(13.6%)	9(40.9%)	7(31.8%)	

†Statistical analysis performed using Chi-square tes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6. Comparison of the groups' knowledge to the awareness of herpes zoster -1

Characteristics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P
직접적인 원인	세균감염	40(33.1%)	40(17.6%))	34(7.2%)	4(6.2%)	<.05†
	바이러스감염	36(29.8%)	99(43.6%)	192(40.9%)	26(40.6%)	
	스트레스 및 과로	35(28.9%)	84(37.0%)	233(49.6%)	33(51.6%)	
	외상	1(0.8%)	1(0.4%)	1(0.2%)	0(0.0%)	
	노화	3(2.5%)	3(1.3%)	7(1.5%)	0(0.0%)	
	기타	5(4.1%)	0(0.0%)	2(0.4%)	1(1.6%)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발병관계	관련있다.	45(37.2%)	162(71.4%)	416(88.5%)	57(89.1%)	<.05†
	관련없다.	11(9.1%)	15(6.6%)	19(4.0%)	2(3.1%)	
	모르겠다.	65(53.7%)	50(22.0%)	34(7.2%)	5(7.8%)	
호발연령대	10대~20대	11(9.1%)	27(11.9%)	35(7.4%)	3(4.7%)	<.05†
	30대~40대	23(19.0%)	66(29.1%)	104(22.1%)	11(17.2%)	
	50대~60대	65(53.7%)	109(48.0%)	286(60.9%)	45(70.3%)	
	70대이상	21(17.4%)	21(9.3%)	44(9.4%)	5(7.8%)	
대상포진 발생시 주요증상	통증	40(33.1%)	99(43.6%)	260(55.3%)	36(56.2%)	<.05†
	가려움	42(34.7%)	43(18.9%)	61(13.0%)	10(15.6%)	
	피부의 물집	38(31.4%)	78(34.4%)	139(29.6%)	18(28.1%)	
	감각저하	0(0.0%)	6(2.6%)	9(1.9%)	0(0.0%)	
	운동장애	1(0.8%)	1(0.4%)	1(0.2%)	0(0.0%)	
전염성 유무	있다.	26(21.5%)	53(23.3%)	107(22.8%)	12(18.8%)	<.05†
	없다.	34(28.1%)	96(42.3%)	268(57.0%)	47(73.4%)	
	모르겠다.	61(50.4%)	77(33.9%)	94(20.0%)	5(7.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6. Comparison of the groups' knowledge to the awareness of herpes zoster -2

Characteristics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P
대상포진과 수두와의 연관성	있다.	29(24.0%)	69(30.4%)	217(46.2%)	33(51.6%)	<.05†
	없다.	31(25.6%)	62(27.3%)	138(29.4%)	24(37.5%)	
	모르겠다.	60(49.6%)	96(42.3%)	115(24.5%)	7(10.9%)	
대상포진 호발부위	얼굴	44(36.4%)	65(28.6%)	80(17.0%)	8(12.5%)	<.05†
	가슴	22(18.2%)	56(24.7%)	171(36.4%)	23(35.9%)	
	허리	18(14.9%)	45(19.8%)	143(30.4%)	20(31.2%)	
	팔	21(17.4%)	41(18.1%)	52(11.1%)	3(4.7%)	
	다리	14(11.6%)	19(8.4%)	23(4.9%)	10(15.6%)	
대상포진 통증의 지속기간	1주	16(13.2%)	20(8.8%)	44(9.4%)	6(9.4%)	>.05†
	2주	28(23.1%)	60(26.4%)	150(31.9%)	13(20.3%)	
	4주	25(20.7%)	79(34.8%)	160(34.0%)	23(35.9%)	
	3개월	25(20.7%)	35(15.4%)	48(10.2%)	10(15.6%)	
	6개월	10(8.3%)	14(6.2%)	27(5.7%)	5(7.8%)	
	1년 이상	14(11.6%)	17(7.5%)	37(7.9%)	7(10.9%)	
대상포진 재발 빈도	재발이 쉽다.	49(40.5%)	109(48.0%)	296(63.0%)	43(67.2%)	<.05†
	재발이 어렵다.	8(6.6%)	25(11.0%)	79(16.8%)	15(23.4%)	
	모르겠다.	63(52.1%)	93(41.0%)	95(20.2%)	6(9.4%)	
치료시기와 향후 증상지속과의 연관성	관련있다.	41(33.9%)	98(43.2%)	279(59.4%)	50(78.1%)	<.05†
	관련없다.	10(8.3%)	22(9.7%)	45(9.6%)	5(7.8%)	
	모르겠다.	70(57.9%)	106(46.7%)	146(31.1%)	9(14.1%)	
피부병변에 앞선 통증 등의 발생 유무	선행한다.	22(18.2%)	60(26.4%)	264(56.2%)	54(84.4%)	<.05†
	선행하지않는다.	31(25.6%)	78(34.4%)	101(21.5%)	5(7.8%)	
	모르겠다.	68(56.2%)	89(39.2%)	103(21.9%)	5(7.8%)	

†Statistical analysis performed using Chi-square test.